

위험 통제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



이 해 관
(씨즈워 고문)

화보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다니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제 성년이 되어 그 기개를 한층 더 뻗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되니 더욱욱 경하할 일이다. 더욱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화보협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임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화보협회가 탄생하던 1970년대 초를 회고해 보자. 1971년 12월 25일에 전세계를 경악시켰던, 세계 재해사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대연각호텔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인간이 만들어 낸(Man-made) 대형 화재 사고로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 시기에 대왕코너, 시민회관 등 고층 건물의 대형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이

들 사고에서 종전의 화재 사고 패턴과는 상이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기존의 소방 시설로 이러한 대형 화재 사고를 진화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더욱이 심각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고층 건물에 일단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수반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경제 개발의 박차로 산업 시설의 증가, 건물의 대형화, 그리고 유류 사용의 증가가 그 원인이었고, 손해의 규모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였다하면 대형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보상 측면을 보면 대부분의 재산 피해는 보증을 통하여 피해 복구 자금을 조달하였지만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명을 수반한 대형 화재 사고는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서 인명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법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을 1973년 2월 6일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오늘날의 화보협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화보협회는 '화보법'에 따라 전국 7대 도시의 특수건물에 대하여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케 하고 동시에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현재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울산, 부천, 수원, 성남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11개 도시로 확대되어 있음) 또한 화보협회는 업무를 확장하여 국공 및 방산물건에 대한 화재 보험과 7대 도시의 가스사고 배상 책임 보험도 취급하였었다.

따라서 화보협회는 위험관리 과정의 핵심인 위험 통제(Risk control) 기능과 위험 재무(Risk financing) 기능을 갖고 상호 보완하면서 위험관리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사전적 예방 기능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손해의 예방 내지는 경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나아가 사고후 복구 기능의 대안인 의무 보험 가입을 통하여 사고후 피해 복구 자금 조달을 신속히 하여 보험가입자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화보협회는 상가에서 언급한 위험관리의 기능을 통하여 손해율을 낮춘 결과 두 차례의 요율인하 혜택을 특수건물 보험가입자에게 주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

켜 주었고, 소화 기기의 기증을 통하여 소방 장비의 근대화 기여하고 있으며, 산하에 방재시험 연구소를 설립하여 방재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때 손해 보험 업계의 긍지로 느껴진다.

화보협회는 그밖에 불조심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 경화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특수건물의 노후 소화 설비 등의 대체, 개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특수건물 소유주에게 쓴 이자로 대출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그리고 화보협회는 국제적인 방재기관인 미국의 UL, NFPA, FM, 영국의 LPC, FPA, FRS, 서독의 VdS, 유럽의 CFP, 일본의 소방연구소, 요율산정회 등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정보 교환과 방재 관련 국제회의의 참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위험관리사로서의 화보협회의 존재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화보협회는 1980년대에 들어 오면서 창립 이후 최대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 미국의 손해 보험 시장 개방 압력의 일환으로 이미 국내 손해 보험 시장에 진출한 미국의 두 손보사들(AHA와 CIGNA)에게도 화보 Pool의 공동 참여를 허용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금융 시장에도 자유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취지 아래 방산과 국공 물건을 제외한 특수건물의 의무 보험 가입 Pool이 완전 해체되어 이들 물건의 보험 가입

이 완전 경쟁 체제로 바뀔 때 따라 화보협회는 위험 재무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가 되었다.

화보협회는 그동안 위험 관리의 중추적인 구실을 다 해줌으로써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위험 통제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관이 되어 향후 화보협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는 국가는 다같이 방재 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화보협회의 기능과 그 산하에 있는 방재시험연구소의 기능은 국가의 기간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함은 명약관화하다.

화보협회가 위험 통제 기능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볼 수 있다.

하나는 최근 우리 나라에 대형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국가의 중추 산업인 석유 화학 계통의 공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손해의 규모도 적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이들 사고의 원인은 기술적인 검토를 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위험 관리의 위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사료된다.

또 하나는, 어느 기업에서 대형 사고 후 안전 관리 즉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여 위험 통제(Risk control)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고 예방에 만반의 대비를 갖추었는지를 지시한 것을 보았다.

상기 두 가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동안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경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실 모든 기업체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계획할 때 사업비와 이익에만 관심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고 전후에 대한 대책 마련은 매우 미진함을 부인할 수가 없다.

화보협회의 장래는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험 관리의 위험 통제(Risk control) 기능을 여전히 부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우리 나라 기업체의 위험 관리의 기능은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화보협회의 우수한 전문 인력과 그간 축적된 위험 관리 기법들을 각 기업체에 전수시켜 위험 관리자(Risk manager)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험 관리의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화보협회의 기능을 상품화하는 것도 방재 시험연구소 기능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화보협회는 또한 위험 관리의 신기법을 외국에서 도입하는데로 손보업계에도 신속히 전달하며, 화보협회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는 손보의 위험 관리 업무를 통하여 위험 통제(Risk control) 기능이 발휘되어 사고를 예방, 국가 경제의 손실을 예방 내지는 경감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화보협회의 창립 의지를 영속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